

테마칼럼

기업의 윤리

미래창조산업

민고충돌 완화

경제로 세상보기

영속기업, 지속성장



송기진

“ 금융이나 세계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영속기업, 지속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의 마음을 비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모 방송국의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동물들은 얼마나 살까? 궁금해 하곤 했다. 얼마 전 어느 잡지에 실린 것을 보니 말은 20년, 사자 20년, 호랑이 25년, 소 30년, 코끼리 60년으로 나와 있고 심장생애 속하는 학이 대략 80년, 거북이 150년 순이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이 연상되어 학은 한 천년 사는 줄 알았는데 100년도 못산다 하니 실망이 컸다. 그에 비해 인간은 115년을 넘기면 기네스북에 등재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통계청 발표대로라면 2007년 기준으로 남자 76세, 여자 82세였다.

그럼 기업의 수명은 얼마일까? 먼저 장수기업이 많은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건축업을 하는 서기 578년에 창업된 일본의 콘고구미사로 무려 1천431년간 존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밖에 일본에는 1천년 이상 된 회사가 6개나 더 있고 500년 이상은 32사, 200년 이상 3천146사, 100년 이상은 무려 5만 개나 존재한다. 전세계에 창업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총 41개국에 5,586사가 있는데 그 중 56%가 일본에 있고, 독일(837사), 네덜란드(222사), 프랑스(196사) 순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명을 한번 살펴보자. 상장회사 협의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것 같으면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평균연령은 32.9세, 코스닥 기업은 16.7세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평균수명 40~50년에 비해 현저히 존속기간이 짧다.

우리나라 최고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은

1938년 삼성상회가 생긴 이래 올해로 71주년이고, LG그룹 모태인 라화학공업과 현대그룹의 모태인 현대토건이 각각 1947년에 설립되어 62주년을 기록하고 있다. 1896년에 설립된 두산(113년), 1897년에 설립된 동화약품(112년), 1899년에 설립된 대한천일은행(現 우리은행 전신, 110년) 세 곳이 그나마 10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은 2006년 기준으로 10.4년에 불과하고 통상 100년 이상 존속한 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는 앞서 열거한 두산, 동화약품, 우리은행 3개사가 장수기업인 셈이다. 물론 최근 미국기업의 평균수명도 15년 정도에 불과해 미국에서도 장수기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일본이 장수기업 대국으로 발전해 온 것은 본업 중시, 신뢰경영, 투철한 장인정신,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 보수적 자금운영 등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물론 왜란(倭亂)이나 호란(胡亂) 등 외부침입이 잦았던 우리나라에 비해 외부침입이 거의 없었고 장인을 존중하는 문화 등도 장수기업이 많아진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단명에 그치지 않고 영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지속성장하려면 장수기업 대국 일본으로부터 배울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째, R&D에 성공해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상호 협력하고 신뢰하는 전향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긴요하다.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항

상 타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일본 장수기업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히 수직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체간, 그리고 1차, 2차, 3차 공급자 간 상호 공존하는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은 자체력을 발휘,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은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우리은행의 백년대계 컨설팅 등 각종 행들이 앞다퉈 세계, 인사, 노무 등 기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업승계를 촉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최근 세계계약을 통해 기업상속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기업상속 공제 한도도 종전 일몰액 30억원에서 10~14년은 60억, 15~19년은 80억, 20년 이상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시킴으로써 중소기업 기업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 바 있다. 이 모두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고무적인 일들이다.

물론 금융이나 세계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영속기업, 지속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의 마음을 비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경영권을 자손이 아닌 사내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고 전 재산을 공익법인인 유한재단에 기부한 유한양행 설립자 故 유일환 박사님께서 후세 기업인들에게 남긴 실천적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은행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디자인 비엔날레 지역산업과 연계해야

지구촌의 디자인축제인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18일 개막, 48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올해는 ‘The Clue - 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주제로 광주 북구 중의공원 비엔날레관을 비롯해 양림동 이장우 가옥과 수피아여고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오는 11월4일까지 계속 된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48개국에서 900여 디자이너와 기업이 참가해 1천 950여개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주전시관은 의(依), 식(食), 주(住), 학(學), 락(樂) 등 5개의 소주제와 2개의 프로젝트전으로 구성됐다.

특히 처음 시도된 남도 고유의 문화를 디자인과 접목시키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에코디자인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사례에 대한 전시도 눈길을 끈다.

그러나 올해 3회째를 맞은 광주디자인

비엔날레가 국내외 디자인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을 지역기업에서 상품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올해 도입된 비즈니스 큐레이터 제도도 상품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디자인비엔날레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신중 플루 여파로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제한된다. 이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관람객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행사 주관기관을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로 변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디자인비엔날레를 주관하고 비엔날레재단은 2년마다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전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F1 지원법 통과 성공개최 계기로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포뮬러원(F1)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술한 우려곡절을 겪으며 3년 만에 빛을 본 F1 지원법은 성공개최를 위한 확실한 담보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를 환영한다.

지원법 통과로 내년부터 7년간 전남에서 개최되는 F1 대회가 명실상부한 국가차원의 행사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지원법 제정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J프로젝트 등 서남권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공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도비 확보 등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F1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게 현실이다. 우선 숙박과 교통 등 열악하게 짜여 없

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의 시설로는 3일간의 대회가 기간 동안 예상되는 20만명의 관람객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경기장 인근 도로 확장, KTX 연계 등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F1 대회 불 성공도 성공개최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돼 내년 대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분위기가 뜨겁고 있다. 흥행 없이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불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내년 대회 개최는 확실해졌다. 이제는 F1 대회가 나후턴 지역경제와 서남권 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無等鼓

사고 다발 도로,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으니 그걸 지키는 차는 거의 없다. 모두가 공명을 내며 쌍쌍 달릴 뿐, 피를 내어 누드비치 표지판을 내거니 호기심에 가득 찬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서 속도를 줄인다. TV광고의 한 장면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은 자꾸 저분해지는 남자화장실 때문에 골머리를 쏘고 있다. TV광고의 한 장면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은 자꾸 저분해지는 남자화장실 때문에 골머리를 쏘고 있다. TV광고의 한 장면이다.

나 줄였다. 부러운 개념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넛지(Nudge)효과’의 사례들이다. 원래 넛지는 ‘팔꿈치로 꾀 찌른다’는 뜻이다.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카스 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넛지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택을 이끄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의사가 수술해서 살아남 확률이 90%라고 말했다면, 그 수술로 죽을 확률이 10%라

고 말했다면 환자의 선택은 확연히 달라진다. 죽을 확률을 말했다면 대다수의 환자는 수술을 거부한다.

최근 신중플루가 확산 되면서 곳곳에서 공무원사회의 경직성이 드러나고 있다. 온통 ‘하지 말라’ 일색이다. 학교는 환자가 나오면 무조건 휴교령, 행사취소도 잇따른다. 가족이나 국민은 불안한데 되레 공포를 증폭시키고 말았다.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부작용도 막대하다. 최근에 와서야 취소했던 행사들이 일부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좀더 유연하게 개념하고 대처했다면 국민이 처리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국민보건과 관련 있는 일이라 매사 조심해야 하겠지만 일방통행은 안된다. 정책을 펴는 데도 ‘넛지 속 팔꿈치’ 같은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김일환여론대우팀장 kih8@kwangju.co.kr

‘넛지’의 지혜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신준호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광주까지 개통된다. 서울~광주를 1시간32분에 연결하는 속도혁명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삼기 위해 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연계교통망 확충과 KTX 역세권 개발을 준비했으면 한다. 고속철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최종목적지까지 장시간이 걸리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 선상 도로와 선상 주차장 및 복합센터를 만든다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도시 확대에 따른 환경과 도시심공통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도심 확장보다 도심 재개발이 녹색성장 시대에 꼭 필요한 만큼 KTX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 물흐르듯 이어지는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는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 폐해를 극복하

기고



윤기선

가를 바람속에 펼쳐진 신문에 유독 눈이 띄는 기사들이 있다. ‘교권 추락’ ‘여교사 희롱’ ‘교사 폭행’ 등 제목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에 힘이 들어간다. 종종 들려오던 교실의 난감한 상황들이 며칠 사이 종합특집 나방 연달아 터져 나온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교육과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 실로 마음이 아프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며,

그 시작도 마지막도 학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아이들의 눈빛에, 아이들의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른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머리모양 하나에도, 아이들의 갈아입은 옷 하나에도 관심을 드러내면 우리의 아이들은 변화한다. 교사의 관심과 사랑에 아이들 역시 사랑으로 보답한다. 교사에 대한 애정이

교육은 학생 사랑이다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신념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우리의 교육 뿌리는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변해버린 교육은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너무 큰 변화를 겪었는지도 모르겠다. 수천 년 전부터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의 눈에는 ‘요즘 어린 것들’이었으니 지금의 아이들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해버린 세상을 타하기에 는 역시나 세상은 변하는 것이니 핑계가 되고 만다.

스승의 모습이 근엄하고 위엄을 갖추어 헛기침만으로도, 탁자를 내리치는 곰방대 소리만으로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우렁차게 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함께 노래하고, 함께 뛰구는 교사의 시대가 되었다. 교사의 모습은 달라졌을지언정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마음은 변함이 없으리라. 그 변함없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사에 대한 존경을 불러오고 존경받는 교사들이 많은 교단은 교권의 추락이라는 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다시 수업으로도 연결된다. 아이들의 다름을 인지하고 그 다름에 따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다보면 우리 교육이 할 망하는 수준별 교육도 가능해진다. 교사가 열과 성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고 신나고 즐거운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학생들에 대한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햇빛이 어린 사과나무를 비추어 그 나무가 자라고, 줄기를 굽게 하며 잎이 피어나게 하듯이 교사의 사랑이 어린 아이들을 비추어 열매 맺기 전까지 충만한 양분이 되어 주어야한다. 올바른 교사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다. 올바른 교사가 존경받으며, 존경받는 교사가 많아져야 우리의 교단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사)남도사람나무 이사장

공공기관 ‘자동응답 시스템’ 수정기능 없어 불편

요즘 공공서나 기업 병원 은행 등에서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해 두고 있는데 메시지에 따라 번호를 누르다 보면 상당한 안내와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잘못된 경우 전화를 끊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출금거래내역을 조회한다고 할 경우 은행 자동응답번호를 누른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코드번호, 계좌정보조회, 비밀번호, 조회를 원하는 시작날짜, 그리고 조

회를 끝내는 마지막 날짜까지 번호를 50~70개 이상 눌러야 한다. 하지만 이 50~70개 가 되는 번호 중 실수로 누르거나 잘못 눌러도 전화를 끊고 다시 시작해야만 하니 그 시간낭비와 불편함이 보통을 넘는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은행들 모두 번호를 잘못 누를 경우 지울 수 있는 클리어(CLEAR)기능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고객 편의를 위해 담당 사행해 주기 바란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